



# 신의 얼굴, 삶을 비추다... 남아시아 가면극의 세계

국립민속박물관, 남아시아 5개국 대표 가면극 연구총서 발간

국립민속박물관은 '세계로 열린 창'이라는 비전 아래 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네팔·부탄 등 남아시아 5개국의 대표 가면극 10종을 수록한 '남아시아의 가면과 가면극'을 발간했다.

이번 총서는 각국 전문가의 연구와 박물관 조사팀의 현장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신의 얼굴을 한 가면을 통해 인간의 삶을 비추는 남아시아 가면극의 특징을 정리했다. 가면의 형태와 연행 방식은 한국과 차이를 보이지만,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는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책은 지역별 대표 가면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장에서는 가면의 형태와 연행 방식, 의례·축제 속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인도 동부에서 새해를 맞아 연행되는 초우(Chhau)는 봄 축제 '차이트라 파르바' 기간에 펼쳐지는 가면극으로, 신화 서사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적 성격을 지닌다. 축제의 마지막 기간 동안 어지는 공연은 한 해의 불운을 씻고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려는 의미를 담는다. 총서에는 궁정 전통의 영향을 받은 '세라이켈라 초우'와 화려한 장식과 군무가 특징인 '푸를리아 초우'가 함께 소개된다.

인도 남부 케랄라 지역의 쿰마티칼리(Ku

mmatikali)는 오남(Onam) 축제 기간에 가면을 쓴 연희자들이 마을을 돌며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형식의 가면극이다. 신을 맞이하고 공동체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국의 '지신밟기'와 유사한 점이 언급된다. 집필자인 고팔라크리슈난은 연행 과정과 가면의 형태, 다양한 캐릭터 구성을 중심으로 이를 설명한다.

스리랑카 남부 지역에서 전승된 산니(Sanni) 가면극은 치병 의례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행되는 가면극으로, 질병을 상징하는 18명의 집신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병의 성격은 가면의 형태와 몸짓으로 구체화되며, 무당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을 통해 의례가 마무리된다. 리리 야카(Riri Yaka)와 골

루 산니(Golu Sanni) 등 개별 집신의 특징은 색채와 움직임 등을 통해 드러난다. 집필자인 이랑가 위라코디는 이러한 연행 구조와 상징 체계를 현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이밖에도 책에는 스리랑카의 소카리(Sokari)와 콜람(Kolam), 방글라데시의 칼리카치(Kalikach), 네팔의 마하칼리 피아칸(Mahakali Pyakhan), 부탄의 드라메체 음아참(Drametse Ngacham)과 팍참(Phag Cham) 등 남아시아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가면극이 함께 수록됐다.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통해 남아시아 가면극의 면면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남아시아의 가면과 가면극' 원문은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발간자료' 메뉴에서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국립민속박물관이 한국 전통 연희와 공통된 의례적 기능을 지닌 남아시아 가면극을 조명한 연구총서를 펴냈다. 재앙을 물리치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가면극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례와 축제를 넘나드는 가면극의 세계를 담았다. 각 지역 사례를 통해 공동된 의례적 기능과 차이를 함께 보여준다.



재앙 해소·안녕 기원  
韓 전통 연희 맞닿은  
의례 기능 조명

## 미래를 기억하는 문학의 시간, 현재를 구원하다

김영삼 첫 비평집 '미래 기억 연습'



"한국문학이 과거의 '흔적'을 더듬어 현재를 열어내는 일은 절망 속에서 미래를 길어 올리기 위한 시간의 복습일지도 모른다." 김영삼 문학비평가가 첫 비평집 '미래 기억 연습'(문학들7)을 펴냈다. 그는 이번 비평집에서 니체, 벤야민, 아감벤의 사유를 바탕으로 2020년대 한국문학 작가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다음 세기에 도래할 절망을 미리 목도한 니체, 과거를 폭파해 현재를 구원하고자 한 벤야민, 그리고 동시대의 존재 조건을 물었던 아감벤의 질문을 경유해 오늘의 문학이 응답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소문자 존재들'에서는 세계의 폭력성과 관습적 강박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연약한 주체들의 흔적을 다룬다. '함께 있지만 같지 않은'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가능성도 읽어낸다. 기존의 배타적 공동체를 해체하고, 언어로 포착하기 어려운 복수의 관계성을 탐색하는 지

점이 중심에 놓인다.

2부 '남쪽 도시에서'는 광주를 매개로 한 문학적 사유를 엮었다. '절대적 무권력 상태'로 출현해 권력의 무능을 드러냈던 도시이자 '과거가 현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놓인 공간으로서 광주를 성찰한다.

3부 '징후와 성좌들'에서는 생존과 혐오, 차별의 구조 속에서 경계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들의 서사를 다룬다. 서로 다른 궤도를 지닌 텍스트들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동시대의 감각을 포착한다.

4부와 5부는 시에 대한 비평으로 채워졌다. '실어증을 앓는 언어들'을 시작으로, 4부

'어둠의 궤도'에는 '서정시학'과 '포넌피콜'에 발표한 글을, 5부 '원홀'에는 'POSITION'에 실린 글을 묶었다.

이 비평집은 한국문학 작품을 통해 세계의 폭력성과 절망을 읽어내는 동시에, 그 속에서 미래를 기억하고 현재를 구원하려는 문학적 실천을 탐색한다.

"세계의 착란과 착시를 응시하고 폭로하기 위해 겪었을 시간과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도달한 형식에 나의 문장이 닿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뿐"이라는 저자의 고백은 이 책에 담긴 사유의 무게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한편 김영삼 비평가는 201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전남대 국어국문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재 종합문예지 '문학들'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명진기자

### 새로운 책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이소연 저자  
결혼식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이들과 웨딩 업계 관계자 수십명을 만나 인터뷰하고, 저자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결혼식 문화를 분석한 르포르타주다. 저자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는 순간 결혼식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방식 그대로를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주도권을 잡고, 개인은 파편화돼 소비자로서 의무가 부여된다. 결혼식도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각 단계에는 끝없는 선택지가 펼쳐진다. /틀고래·2만원



▲손절사=이승연 저자  
'손절'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현상이 보여주듯 요즘은 인간관계를 단절하려는 조언이 흔한 시대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토록 외로운 사람이 많은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책은 손익계산이 돼버린 오늘날의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에서 대중문화에 이르는 전방위적 탐구의 결과다. 98년생 사회학 연구자 이승연은 20대 여성의 우울증 치료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청년 세대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외로움을 호소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단절을 선택하는 이유'에 주목하고, '손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시대 인간관계를 사회문화적으로 탐구한다. /여크로스·2만1천원



▲파란 파란=유지현 저자  
이 책은 열아홉 살 모파와 친구들의 이야기다. 지구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미래, 심해 도시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청운시에 사는 모파는 고교 심해수영 선수다. 모파의 기록은 언제부터인가 주춤했고, 앞서 나가는 동료들을 바라보게 된 지 오래다. 레인에 뛰어드는 게 딱히 즐겁지 않지만, 아무런 길도 나 있지 않은 레인 밖은 더 두렵다. 온 세상이 무조건 나를 받아 주지는 않는다는 걸 깨닫는 시기인 열아홉, 조금만 마음이 자꾸 찢아드는 청소년기 불안감을 매만지는 이 작품은 '나'를 마주하고, 사랑하는 법에 관한 소설이기도 하다. /창비·1만5천원



▲나의 비밀=명한나 글·그림  
누구에게나 남에게 들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하나쯤은 있다. 도아에게는 '나의 비밀'이라는 제목 끝에 있는 작은 점(.)이 바로 그 비밀이다. 하지만 콤플렉스는 숨길수록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도아는 누군가의 설득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비밀을 드러내기로 한다. 방방에서 더 높이 뛰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양말을 벗어 던진 것처럼, 나를 마주하는 데에는 아주 작은 용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콤플렉스를 숨기던 아이가 스스로 양말을 벗기까지의 과정은 아이들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공감과 작은 용기를 심어줄 것이다. /국민서관·1만5천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